

막 오른 입법전쟁... 곳곳이 '지뢰밭'

與 노동개혁법안 등 재추진 방침에 野 '처리 불가' 확고

법인세 인상 3당3색, 공수처·세월호특별법 등 뇌관 수두룩

제20대 첫 정기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빚어진 파행 사태가 28시간 만에 극적으로 수습됐다.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어 조선·해양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총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추경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고려해 출연·출자금에 대해 삭감되는 대신 일자리 창출과 교육·의료 분야 지원금이 크게 늘었다. 정부안에서 사업 예산을 9조7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한 데 따른 삭감분 1000억 원을 나랏빚을 갚는데 쓰기로 하면서 국가채무 상환 재원은 1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015년도 결산안과 감사요구안,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도 절대다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발로 시작된 국회 파행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물밑에서 정 의장과 접촉,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부의장 사퇴로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하면서 수습됐다. 자신의 개회사에 대한 사과 요구를 거부하는 정 의장과, 정 의장의 회의 진행을 따를 수 없다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은 셈이다.

양측이 돌파구를 모색하는 데는 현역 최다선인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과, 광주 일정도 취소하고 국회에 남은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막후 중재 노력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이처럼 정상화됐지만 곳곳이 지뢰밭이다. 여야 모두 중점법안에 대한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입법과정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지점은 법인세율 인상 논란이

다. 더민주는 이번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 때 22%로 인하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이지만, 새누리당은 현시점에서 어떤 형태든 세율 올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더민주의 명목세율 인상보다는 실효세율을 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야당 간에도 입장차가 존재한다.

또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위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중점법안을 또다시 추진할 방침이지만, 비정규직 양산과 의료 민영화와 관련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야당의 처리불가 입장 역시 확고하다.

반대로 두 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고 이미 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이지만 새누리당은 '옥상옥'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이슈다.

또 새누리는 역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폐기된 규제프리존법과 20대 국회 1호 법안인 청년기본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더민주의 중점법안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과 5·18 민주화운동 명예훼손 금지 특별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법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당은 전기요금에 3.7%가 붙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낮추는 전기사업법 개정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입법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반갑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에서 열린 사진기자축체육대회에서 만나 밝게 웃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청와대 조운선·김재수 임명 강행

野 부적격 청문 보고서 채택에도...박대통령 전자 결재

국회가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권의 강력 반발이 불가피,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중국 항저우에서 조운선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와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를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2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정세균 의장 개회사 내용에 반발해 의사일정을 거부한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위원들 단독으로 조운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했다. 전날에도 김재수 후보 청문회에서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 야당의원들만 남아 김 후보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헌법상 국무위원 가운데 국무총리를 제외하면 국회의 인사청문결과 보고서 채택 또는 '적격' 의견 여부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반면 조경규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가 채택됐다. 김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박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인해 정국의 경색 국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국민의당은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 강행과 관련 "야당과의 소통, 협치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박경미 더민주 대변인도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법으로 명시된 인사 청문제도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

김종인 '경제포럼' 띄운다

'경제민주화' 대선 화두 부각

7일 순천·9일 광주 방문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민주화에 뜻을 함께하는 전문가그룹과 함께 '경제포럼'을 띄우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김 전 대표가 내년 대선을 겨냥해 정권 외부의 학자와 전문가, 실물경제인을 아우르는 '외곽조직'을 만드는 것으로 해석된다.

모임은 김 전 대표의 브랜드인 경제민주화 담론을 향후 대선국면의 최대 아젠다로 부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모임 규모나 발족 시기는 유동적인 가운데 실무자업은 과수종 전 삼성경제연구소 글로벌연구실 수석연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5일 소상공인연합회 강연을 시작으로 오는 7일 순천대에서의 경제민주화 토크쇼, 8일 국회 '미래산업과 좋은 일자리포럼' 창립식 강연 등을 통해 대중과의 접촉면도 늘릴 계획이다. 오는 9일에는 광주도 방문한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이 “정치 개혁” vs 추 “민생 경제” vs 박 “일하는 국회”

<정현> <미애> <지연>

오늘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26일부터 국정감사

20대 첫 정기국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5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연설은 각 당이 내년 대선전까지 나아갈 '항로'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이어서 대선 '프레임 대결' 성격이 짙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시각이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6일, 그리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대표연설에 각각 나선다.

첫 주자로 나서는 이 대표는 정치개혁과 통합에 초점을 맞춰 연설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4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이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 통렬하게 자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 추 대표는 주말 내내 연설문 작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민생 경제와 통합이 연설의 핵심이다. 특히

청와대가 지난 4·13 총선의 민의를 수용해 여야와 소통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혀 온 추 대표가 이번 대표연설에서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추 대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거취와 검찰 개혁, 헌법 개정,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 등에 대한 강도와 수위를 높은 발언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 위원장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제3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이

를 위해 박 대통령이 국회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우 수석 거취 논란과 대우조선해양 사태로 드러난 관피아·전관예우 문제를 질타하고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도 호소한다. 또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한 연장,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해결, 사드 배치의 국회 동의 등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는 오는 20~23일 대정부 질문을 하고 26일부터 10월15일까지 국정감사를 한다. /박지경기자jkpark@

이정현 “추석인사 선물 대신 편지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추석을 맞아 그동안 당 주요 인사에게 보내던 선물을 보내지 않고, 그 예산을 '이웃 돕기'에 쓰기로 했다.

이 대표는 4일 "관행적으로 선물을 해왔던 고위 당직자들에게는 편지로 마음을 전해도 될 것 같고, 그 예산으로 주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요인사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이번 추석부터 선물 돌리는 걸 자제하기로 했



다"고 밝혔다. 이어 "비용을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께 마음의 정을 나누고 어려운 시설에 기부하기로 했다"며 양해를 구하는 내용을 편지에 담았다. 이 대표는 선물비용으로 당사에서 근무하는 약 15명의 경비원과 청소노동자들에게 오는 5일 오찬을 대접하고, 3만 원대 추석 선물을 전달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jkpark@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